〔論 文〕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張 起 熏*

차 례

Ⅰ. 머리말
Ⅱ. 17世紀 分院白磁의 특징
Ⅲ. 17世紀 前半의 양식변화
1. 分院의 도자수급상황
2. 가마터출토 白磁의 형식
Ⅳ. 白磁樣式變化의 방향
1. 大量生産技術의 도입
2. 獨自的 形式의 모색
Ⅴ. 맺음말

Ⅰ. 머 리 말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수차례의 倭亂과 胡亂을 치른 朝鮮王朝는 국력이 쇠퇴하고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와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도자수공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17세기 초 양질백자의 생산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戰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필수품인 磁器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였으며, 金, 銀, 銅과 같은 물자의 조달이 어려웠던 당시에는 왕실에서도 각종 金屬器皿을 磁器로 대체하면서 도자의 수요는 더욱 늘 수 밖에 없었다.

급증한 도자수요에 비해 공급여건이 열악했던 17세기 전반에는 도자기 생산체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17세기의 조선백자는 그릇의 成形, 施釉, 燔造와 관련된 제작기술을 비롯하여 형태와 문양이 15~16세기의 朝鮮前期白磁와 뚜렷하게 구분되며, 彩色磁器를 중심으로 발달한 동시대의 中國이나 日本의 도자와도 크게 다른 조선도자의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英祖와 正祖代의 문화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淸代陶磁의 영향을 소화하여 이룩한 朝鮮後期白磁樣式에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7세기 백자양식의 형성시점은 조선시대 도자양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

*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硏究員

라고 할 수 있다.[1]

필자는 이글에서 백자양식의 전환기로서 특히 17세기 전반을 주목하고 이 시기에 조선의 官營磁器製造所인 司饔院 分院에서 제작된 백자의 양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백자양식의 소멸과 17세기 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文獻과 編年資料를 토대로 당시 분원의 요업실태를 살펴본 다음 운영연대가 분명한 분원가마터 출토 백자의 형식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백자양식의 형성방향을 추론하여 17세기 백자양식의 성격을 파악하여 보겠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간 조선도자의 침체기로 치부되어 있던 17세기 전반이 窯業의 復興을 모색하는 양식의 형성기로서 부각되리라 생각되며 17세기 백자양식의 성립시점과 그 성격이 밝혀져 임진왜란이후 조선도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찰의 첫 단계로 章을 바꾸어 먼저 17세기의 분원백자가 어떠한 점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17世紀 分院白磁의 특징

조선의 官用磁器를 생산하기 위해 1460년대 후반에 설치된 司饔院 分院은 京畿道 廣州일대를 옮겨 다니면서 1884년 민간에 이양되기까지 약 420년간 요업활동을 지속하였는데,[2] 현재 광주군내에서 확인된 약 289개소의 조선시대 가마터들은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유적이다.[3] 그중에서 발굴조사되어 가마의 규모와 운영시기, 생산유물의 양상이 보고된 분원가마터로는 牛山里 9號, 道馬里 1號, 樊川里 5號와 9號, 그리고 仙東里 2·3號가 있으며, 이들중 우산리와 도마리, 번천리 가마는 각각 15~16세기 사이에 進上用 백자를 생산하던 곳들로 추정되고 있다(地圖 참고).[4]

---

1) 이점에 주목하여 대부분 연구자들이 17세기를 朝鮮中期에 포함시켜 前期와 구분하나 그 시점은 서로 다르다. 鄭良謨 先生은 前期(1392~1649), 中期(1650~1751), 後期(1752~1880년대)로 나누고 戰亂이후 窯業이 부흥하는 孝宗年間부터 중기로 보았다(鄭良謨, 「朝鮮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pp. 135~161). 姜敬淑 先生은 初期(1392~1600), 中期(1600~1751), 後期(1752~1883), 末期(1884~1945)로 나누고 1680년까지는 전기양식을 계승하면서 鐵畵白磁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보인다고 하였다(姜敬淑, 「朝鮮時代 陶磁」,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263~469). 尹龍二 先生은 初期(1392~1550), 中期(1550~1700), 後期(1701~1910)로 편년하고 중기는 17세기에 이르러 전성을 이룬다고 하였다(尹龍二, 「朝鮮初期·中期·後期陶磁의 特色」, 『古美術』 봄, 여름, 가을호(1990))

2) 分院은 『經國大典』 반포(1469)이전에 廣州지역에 설치·운영된 것 같다(金英媛, 『朝鮮前期陶磁의 硏究』(학연문화사, 1995), pp. 53~61. 참고). 그리고 분원의 위치는 『承政院日記』 肅宗 23年 3月 12日條에 柴場을 廣州 6面과 楊根 3面으로 규정하고 있어 『輿地圖書』, 楊根郡 坊里條에 명기된 退村, 完村, 初月, 刀尺, 慶安, 五浦, 南終, 南始, 南中面내로 본다.

3)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Ⅱ』(2000), pp. 233~256; 최근 광주 도요지 지표조사결과를 보고한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1998)에는 280개소분의 요지출토유물이 수록되어 있다.

선동리가마는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굽의 안쪽 바닥에 釉藥을 긁어 '左', '右', 숫자 등과 함께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의 간지를 각각 표시한 백자편들이 발견되었고(圖 11 참고) 간지의 분포연대와 『朝鮮王朝實錄』의 분원이설기록이 일치하여 1640년에서 1649년까지 분원이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5] 그런데 선동리가마는 출토된 그릇의 형식과 제작기법이 앞의 분원가마에서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17세기, 특히 1640년대 분원백자의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우산리와 도마리, 번천리가마 퇴적층에서는 匣鉢을 씌워 굽거나 그릇을 포개지 않고 한 점씩 정성껏 제작한 良質의 백자와 여러점을 포개 다량으로 구워낸 粗質백자들이 함께 발견되는데, 양질은 주로 御器를 비롯한 왕실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질은 궐내의 각처에서 사용되거나 일부는 沙器匠人들의 생계를 위해 매매되기도 하였다고 생각된다.[6] 이들 가마터에서 생산된 양질백자의 굽 안바닥에서는 선동리 출토 백자와 같이 유약을 음각한 명문이 발견되는데 내용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 '地', '玄', '黃'과 數字가 조합되어 있어 干支와 '左', '右' 그리고 숫자가 표시된 선동리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天', '地', '玄', '黃'과 數字는 각각 그릇의 소용처와 수량을 기록하여 분원백자의 유통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되지만,[7] 선동리의 干支와 '左', '右', 숫자는 각각 제작년도와 生産班(組),[8] 그리고 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7세기에는 매년 생산되는 백자의 질적, 양적인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해졌음을 추측케 한다.

---

4) 牛山里 9號는 수습된 '壬寅'銘墓誌片을 1482년 혹은 1542년 作으로 보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가마로 추정하며(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 牛山里 9號 窯址 發掘調査報告-』(1993), pp. 101~102.) 道馬里 1호는 출토된 土棒에 명기된 '乙丑'年을 1505년으로 추정하여 가마운영시기도 이를 전후한다고 본다(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發掘調査 報告書』(1995), pp. 121~124.). 樊川里 5號는 1554년의 '嘉靖三十三年'銘墓誌片이 출토되어 16세기 중반의 가마임을 알 수 있고(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樊川里 5號·仙東里 2,3號-』(1986), pp. 126~128.) 樊川里 9號는 백자의 양식이 우산리나 도마리와 유사하여 16세기 전반의 가마로 추정되는데(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번천리 9호 조선백자도요지 확장시굴조사 현장설명회 회의자료』(1998)) 출토된 墓誌片들의 해석과 함께 구체적인 편년이 보고될 것이다. 이밖에 분원 이전의 광주 백자가마터 발굴보고서로는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1995);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Ⅱ)』(1999); 해강도자미술관, 『廣州 建業里 白磁窯址』(2000)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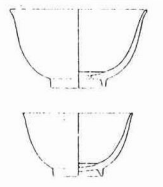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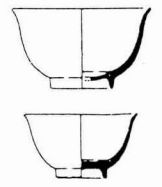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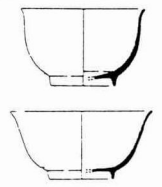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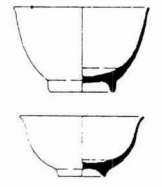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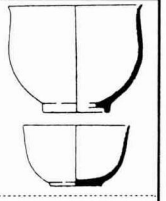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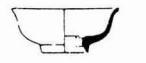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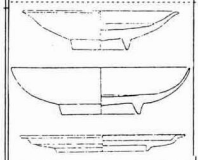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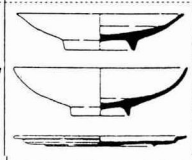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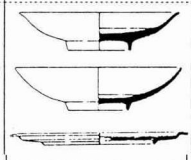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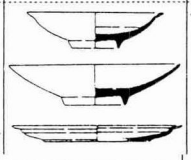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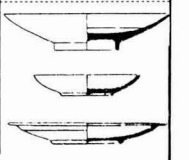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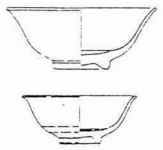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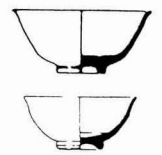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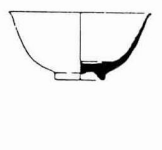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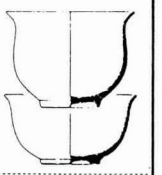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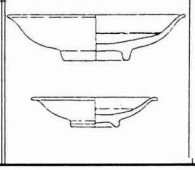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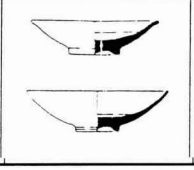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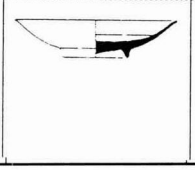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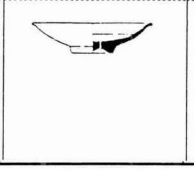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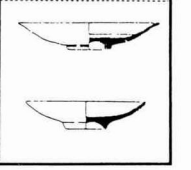
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韓國道路公社, 위의 책(1986), pp. 163~312; 선동리가마의 移設記錄으로는 『承政院日記』 仁祖 18年 4月 16日條, 26年 11月 9日條, 孝宗卽位年 8月 15日條가 있다.

6) 鄭良謨, 「京畿道 廣州分院 窯址에 대한 編年的 考察」, 『韓國白磁陶窯址』(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pp. 20~21. 前者를 위한 가마를 主要, 後者를 위한 가마를 從屬窯로 구분하였다.

7) 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硏究」, 『考古美術』 149호 (1981), pp. 22~45와 151호, pp. 46~59. '天', '地', '玄', '黃'銘은 景福宮 勤政殿의 창고인 '天字庫', '地字庫' 등의 표시로 본다.

8) 鄭良謨, 앞의 論文(1986), p. 14. 成俔의 『慵齋叢話』에 "매년 司饔院 管理가…左右邊으로 나뉘어…御器를 監造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左右는 두 개의 生産班을 의미한다고 본다

<표 1> 발굴조사된 분원가마터 출토 백자의 형식[9]

유물 \ 가마터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9호	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
편 년			'乙丑'銘土棒 1445년 또는 1505년 전후	'壬寅'銘墓誌片 1482년 또는 1542년 전후	16세기 전반경	'嘉靖三十三年' 明墓誌片 1554년 전후	陰刻干支銘片 1640~1649년
양질백자·갑번예번	명문		天地玄黃,숫자	天地玄黃,숫자	天地玄黃,숫자		干支,左右,숫자
	굽		역삼각형굽	역삼각형굽	역삼각형굽	역삼각형굽	역삼각형굽
	받침		고운 모래	고운 모래	고운 모래	고운 모래	고운 모래
	문양		청화, 흑상감	청화	청화	청화, 철화	청화, 철화
	기형	발					
		종자					
		접시					
조질백자·상번	굽		죽절굽	죽절굽	죽절굽	죽절굽	오목굽
	받침		태토비짐	태토비짐	태토비짐	태토비짐	굵은 모래
	기형	발					
		종자					
		접시					

9) 註 4)의 보고서들에서 발췌하여 필자가 정리함.

17세기까지 분원백자에 이르는 굽받침법의 변화를 앞의 〈표 1〉에서 살펴보면 모든 가마터에서 출토된 양질백자는 굽바닥에 釉藥을 닦아내고 고운모래를 받쳐 구워 시대에 따른 기법의 변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질백자는 15~16세기가마터에서 대마디처럼 깎은 굽의 바닥에 胎土를 빚어 만든 비짐돌을 몇 개씩 받쳐 여러점의 그릇을 포개구운데 반해서 17세기의 선동리에서는 포개구이 할 때 굽의 안쪽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굽의 바닥면에 굵은 모래를 고루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선동리의 조질백자는 製作技法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기법의 변화가 굽의 형태변화와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릇의 형태는 〈표 1〉의 實測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마리와 우산리, 번천리가마에서 출토된 鉢(大楪)과 楪匙, 鐘子(盞)의 굽이 높고 대체로 기벽이 아래부분에서부터 둥근곡선을 이루며 입술부분이 완만하게 벌어져 있다. 또한 이들 飯床用器의 안쪽 바닥면에는 굽지름과 비슷하거나 넓은 원각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17세기의 선동리 백자, 특히 鉢에서는 기벽이 보다 높으면서 배가 부른 S형으로 변화되고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좁아진 것을 볼 수 있다.[10] 또한 굽이 매우 낮으면서 內底圓刻이 없고 입술부분이 곧게 직립한 새로운 형식의 鉢이 발견되는데 이와같은 특징은 선동리의 鉢 뿐만 아니라 접시, 종자와 같은 대부분의 기종에서 모두 보이므로 특히 주목된다.

17세기 백자에서 발견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鐵畵白磁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鐵畵顔料는 조선전기에 粉青沙器나 地方白磁의 施文材料로 사용된 바 있으나 분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표 1〉에서와 같이 우산리와 도마리, 번천리에서는 산화코발트를 이용하여 시문한 靑畵白磁가 주로 제작되었다.[11] 선동리에서도 일부 청화백자가 제작하였으나 용, 매화, 대나무 같은 문양을 대부분 철화로 시문하고 있어 이전에는 거의 제작되지 않던 철화백자가 官用이나 御官用으로까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圖 12, 13 참고).

지금까지 17세기 중엽의 선동리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의 특징을 15~16세기의 우산리, 도마리, 번천리가마터 출토품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선동리를 중심으로 본 17세기 백자는 양질에 陰刻干支銘을 施文하고, 조질에 모래를 받쳐 포개굽는 새로운 제작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굽이 낮고 내저원각이 없으면서 입술이 직립한 반상용기가 제작되는가 하면 철화백자가 많이 제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특징들은 늦어도 선동리가마가 활동한 1640년대에

10) 鄭良謨, 앞의 論文(1986), pp. 11~23 및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3), pp. 101~102.

11) 樊川里 5號 가마에서 白磁鐵畵象形祭器片이 1점 발견된 바 있으며(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韓國道路公社, 앞의 책(1986), p. 120), 호암미술관에는 15C 후반경 분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白磁靑畵鐵畵三山文山罍'가 전해지고 있으나 이 경우는 제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관례나 규범에 따라 부득이 鐵畵施文을 하였다고 보아야겠다.

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식의 형성시점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전반의 窯業狀況과 선동리시기 직전에 운영된 분원가마터의 출토품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Ⅲ. 17世紀 前半의 양식변화

1. 分院의 도자수급상황

17세기 백자의 새로운 특징들이 형성되는 시점에는 사회경제적으로나 분원의 요업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變化要因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16세기 말부터 이어진 壬辰, 丁酉年의 倭亂과 丙子, 丁卯년의 胡亂은 조선후기사회가 재편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전란이후의 정치경제적 침체와 이를 복구해 나가는 과정은 17세기 전반 도자양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분원의 도자수급상황에 대한 이해는 17세기 도자양식 형성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17세기 전반의 도자기 需給狀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宣祖(在位 1567~1508)의 庶子인 王子 仁興君의 第一子 "白磁楪匙形墓誌"와 第二小主阿只氏 "白磁楪匙形胎誌"가 있다(圖 1, 2). 앞의 인흥군 첫아들의 묘지는 기존에 제작되었던 접시안쪽의 釉面을 정으로 쪼아 誌文을 새겼는데, 그 지문에 '崇禎五年(1632)'이라는 부장년대가 밝혀져 있지만 굽 안바닥에는 접시의 제작당시에 새겨진 '丙午'의 간지가 음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접시는 1632년 이전의 丙午年인 1606년에 제작되어 그로부터 26년 뒤에 묘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圖 1).[12]

뒤의 인흥군 제이소주아지씨 태지 또한 이미 제작된 접시를 태지로 활용한 예이다. 즉 내면의 誌文에는 '天啓七年丁卯'의 연대가 있어 1627년에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굽의 안쪽 바닥면에도 '丁卯'의 간지가 있어서 이 경우는 그해에 만든 접시를 골라 태지로 사용한 것을 알려준다(圖 2).[13]

일반적으로 왕실의 태지나 묘지를 事後에 특별히 제작하였던 관례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다시 沙誌石으로 활용하고 있는 17세기 전반은 분원의 백자생산이 그리 원활치 못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위 접시들의 굽 안쪽에 음각된 간지명은 앞에서 설명한 선동리 출토 간지명 파편들과 마찬가지로 분원의 백자공급이 곤란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하겠다. 이는 전술한 바대로 간지를 비롯한 17세기의 음각명이 분원의 백자생산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12) 鄭良謨, 앞의 論文(1980), pp. 170~171.

13)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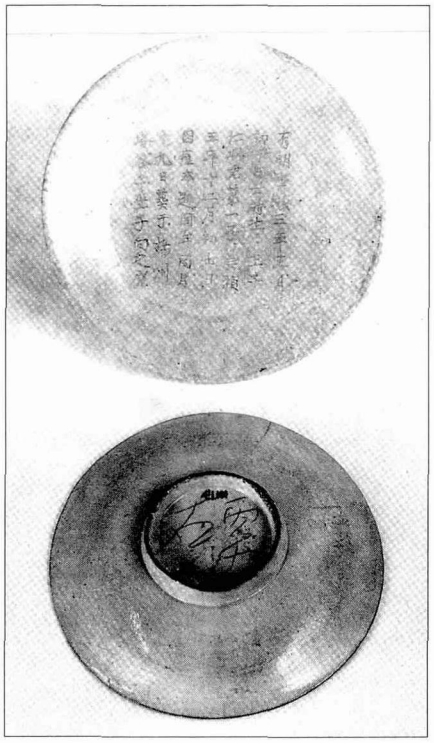


圖 1. <白磁楪匙形墓誌>, 朝鮮 1606年, 議政府市 金梧洞 出土, 입지름 20.1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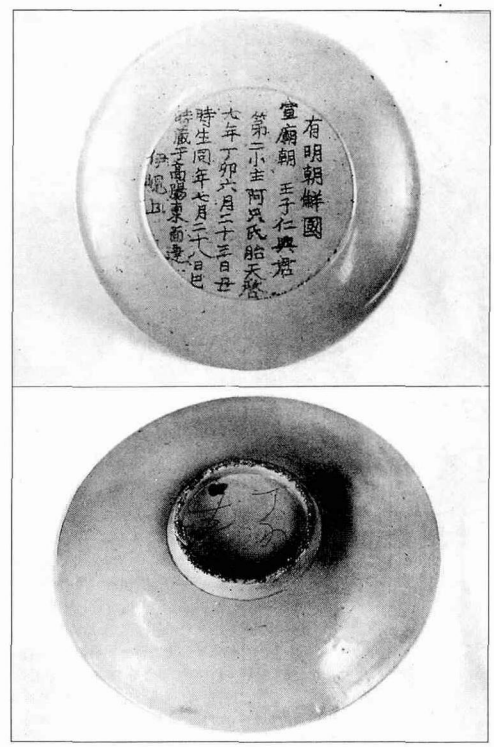


圖 2. <白磁楪匙形胎誌>, 朝鮮 1627年, 高陽市 神道邑 出土, 입지름 19.9cm, 國立中央博物館.

17세기 전반에 磁器供給이 부족했던 사실은 分院의 경영란을 지적한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과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仁祖 3年(1625)의 『承政院日記』에는 '법정인원 1140명이던 분원 沙器匠이 해마다 도망하여 812명만이 남았으며 수령들이 지방의 사기장을 전혀 동원해주지 않으므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14]라고 하여 인력의 부족으로 사기제작이 곤란했던 형편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16세기에 이미 '司饔院 沙器匠의 子枝는 직업을 世傳하게 한다.'[15]고 했던 中宗 38年(1543)의 『大典後續錄』 규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생계의 어려움과 과중한 勞役을 피해 도망하는 장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17세기 초 분원의 경영난은 사기장의 부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중되었던 것

14) 『承政院日記』 仁祖 3年 7月 2日條. "李海求以司饔院言啓曰,本院沙器匠,法典內戶奉足,幷一千一百四十名內,年年逃故稱이,現存八百二十一名…比時外方守令,朝家命令,專不奉行,置之相忘之域,極爲痛駭,若不別樣,必無終年,起送之理…".

15) 『大典後續錄』 卷 6 工典 工匠條. "司饔院沙器匠子枝,毋宗他役,世傳其業".

같다. 이것은 宣祖 38年(1605)의 實錄에서 '지난해 沙器를 굽지 않고 軍人을 뽑아 다른 곳에 이용하였더니 도움이 없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竹山에 城을 쌓는 일이 중요하니 올해에도 사기를 굽는 것을 중지하고 그 군인을 죽산에 투입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16]라고 했던 사실이나 仁祖 6年(1628)의 實錄에서 '饑饉이 심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하니 司饔院의 그릇굽는 匠人 500명의 價布를 賑恤과 軍餉에 보태쓰는 것이 좋겠다'[17]라고 한 기사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당시에는 분원의 도자기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할 만큼 戰後復舊와 救恤事業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630년대 중반부터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분원의 경영난이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예로 仁祖 11年(1633)의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軍屬改編때 司饔院 匠人 1140명 중 300여 명이 兵曹로 移屬되었으나 사기공급이 부족한데다가 사기장이 도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장직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還屬해 줄 것을 요구했다.'[18]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사기제작은 곤란을 겪고 있었겠지만 소극적으로나마 노동력의 확보에 腐心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仁祖 26年(1648)의 『承政院日記』에는 '司饔院의 沙器匠은 전례에 따라서 擇定하여 分院으로 파견할 것이 아니라 使員이 領率하여 분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결코 缺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태만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가 있으면 전례에 따라서 처벌한다.'[19]고 하여 장인들의 出役을 적극 감독함으로써 분원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17세기 전반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란직후에 사기장인의 부족과 전후복구 등을 이유로 분원의 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대체로 1630년대부터는

---

16) 『宣祖實錄』 38年 3月 3日條. "備忘記曰,…上年命勿造沙器,則本院再三啓辭,有苦不造此器,則不能爲,國者然終不聽,之出軍移用於他處,不爲無補奚此時,當如貧婦之治,其家況今,竹山築城,係國事之成敗而事,鉅力綿成就難,期任國事者,豈可不爲之,乎苦今年又停燔造,專委其軍於竹山,則甚好參酌,事勢回啓,言于兵曹"

17) 『仁祖實錄』 6年 8月 10日丁卯條. "司饔院啓曰,當此饑饉,減員浮費,誠出於不得已也,宜以本院沙器匠人五百名價布,輸送於該曹,使之補用於賑恤及軍餉…"

18) 『承政院日記』 仁祖 11年 6月 11日辛未條. "呂爾徽以司饔官,以提調意啓曰,本院(缺二字)一事,仰瀆天聽者,非止一再,則伏想聖明,必已洞察其間事勢,而今復有此火貝啓者,盖出於不得已也,本院匠人元數一千一百四十餘名,俱存之時,猶不免不足之患,頃年軍籍之日,減去其名數,收布亦減其四數,則物力之不足,無足小在也,沙器進上之外,他處祭器進排之數甚多而其中內醫院則入量進排,以此分院告之報,前後相繼,臣等,未知所以爲計也,匠人減去之後,苦幷減其進排沙器之數,則猶域可也,器數則如前,而所減者兄匠人而已,則豈非可悶之甚者乎,匠人等疊受其役,不勝怨苦,多有逃亡者,前頭之事,極爲可慮,法典內沙器匠子枝,毋定他役者,以其燔造之事,非人人所爲,必習其箕之業,方可成才故也,近日則善手匠,多在移屬之中,磁器體制漸不如前者,實由於此也,兵曹則非沙器匠收布,自可支用,而其在本院,切迫如此,且聞工曹以匠人價布不足之故,啓請則匠人二千名送云,請依此例,令兵曹,其所減匠人三百餘名,盡爲還屬本院,以重毋定他役之法,何如,傳曰,言于該曹"

19) 『承政院日記』 仁祖 26年 2月 26日條. "…司饔院啓曰,本院案屬沙器匠,依前例擇定,使員無遺領率, 期限內交付分院,使無關役之弊,而慢不擧行官吏,則依前事目施行…".

사기장인 확보에 대한 방법이 강구되면서 점차로 분원의 경영난도 해소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분원의 백자생산도 正常化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가마터출토 白磁의 형식

앞에서 분원이 겪었던 경영난과 이에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 1630년대부터 백자생산이 점차 정상화되는 상황을 유추하여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시기 백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연대가 알려진 분원가마터 출토유물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仙東里 계통의 陰刻干支銘은 廣州의 炭筏里, 鶴東里, 祥林里, 松亭里, 柳寺里, 新垈里가마터에서도 발견되며(地圖 참고), 간지의 연대는 160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 분포해 있다.[20] 이중 간지에 의해 17세기 전반의 가마터로 확인된 곳은 탄벌리 1호, 학동리 9호, 상림리 1호, 선동리1·2호이다. 즉 탄벌리에서는 양질과 조질의 백자편을 비롯하여 '丙午', '丁未左', '(戊)申', '己酉', '庚戌', '辛亥'의 간지명파편이 수집되었는데(圖 3, 4), 이 중에서 '丙午'銘 파편이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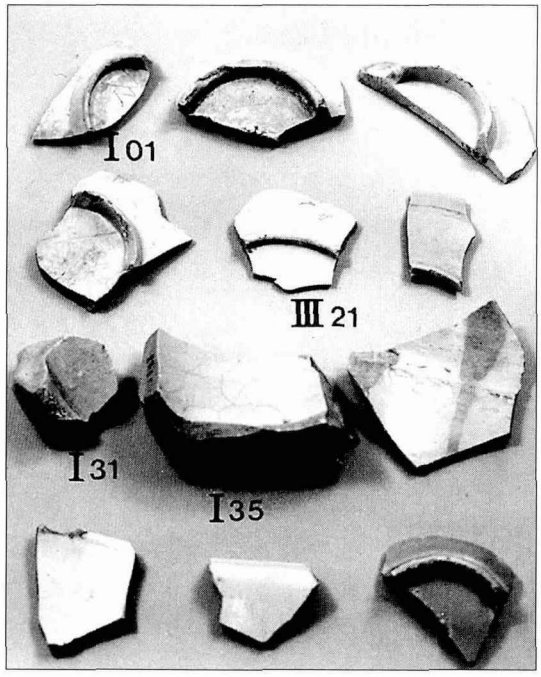


圖 3. <白磁片>, 朝鮮 1606~1611年경, 廣州郡 炭筏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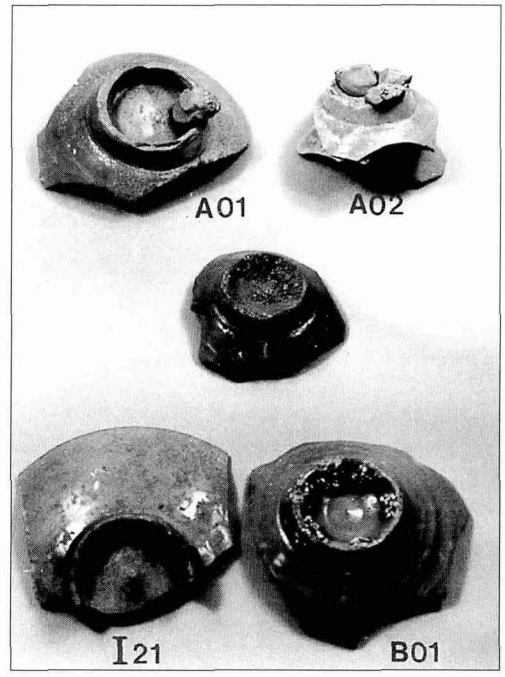


圖 4. <白磁片>, 朝鮮 1606~1611年경, 廣州郡 炭筏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20) 尹龍二, 앞의 論文(1981), pp. 22~45.

본 王子 仁興君 弟一子의 墓誌(圖 1) 굽안바닥에 음각된 '丙午右'銘과 字體가 같고 釉色, 굽형식 등이 유사하므로 전체 간지의 편년은 1606년부터 1611년까지로 추정되었다(圖 3의 위쪽).[21] 학동리에서는 양질과 조질의 백자·청자편들이 발견되었으며(圖 5, 6), 출토된 간지는 '庚(戌)', '癸(丑左)', '(乙)卯右', '丁巳右' 등으로 탄벌리가마의 출토품과 燔法 및 그릇의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編年이 1613년에서 1617년까지로 추정되었다(圖 5의 위쪽).[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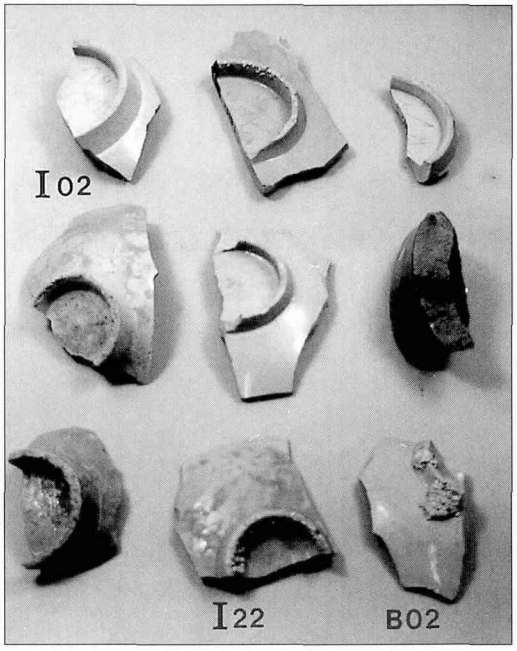


圖 5. <白磁片>, 朝鮮 1613~1617年경, 廣州郡 鶴東里 9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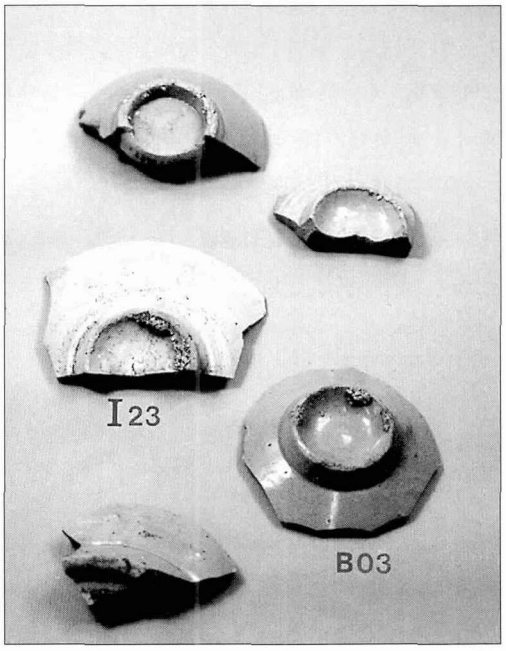


圖 6. <白磁片>, 朝鮮 1613~1617年경, 廣州郡 鶴東里 8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상림리가마에서는 양질과 조질의 백자편을 비롯하여 철화백자와 청자편들이 발견되었는데(圖 8~10), 그곳에서 출토된 '辛未左', '癸酉右', '甲戌', '甲戌右', '乙亥左', '乙亥右', '丙(子)右' 등의 음각명 파편에 의해 1631년에서 1636년을 전후한 가마로 추정되었다(圖 7).[23] 선동리 1·2호 가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백자기명과 청화백자·철화백자·청자가 발견되었으며(圖 12~17), 이들과 동반하여 출토된 간지명 파편과 문헌자료에 의하여 活動期間이

21) 鄭良謨, 앞의 論文(1986), pp. 16~17.

22) 尹龍二, 앞과 같음.

23) 鄭良謨, 앞의 論文(1986), pp.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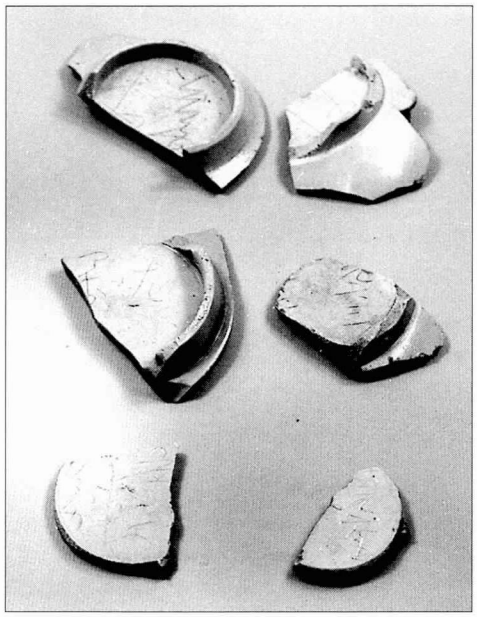


圖 7. <白磁陰刻干支銘片>, 朝鮮 1631～1636年경, 廣州郡 祥林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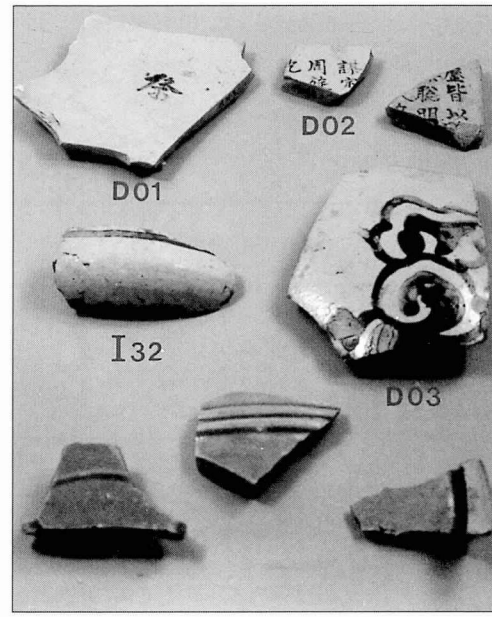


圖 8. <白磁鐵畫文片과 靑磁片>, 朝鮮 1631～1636年경, 廣州郡 祥林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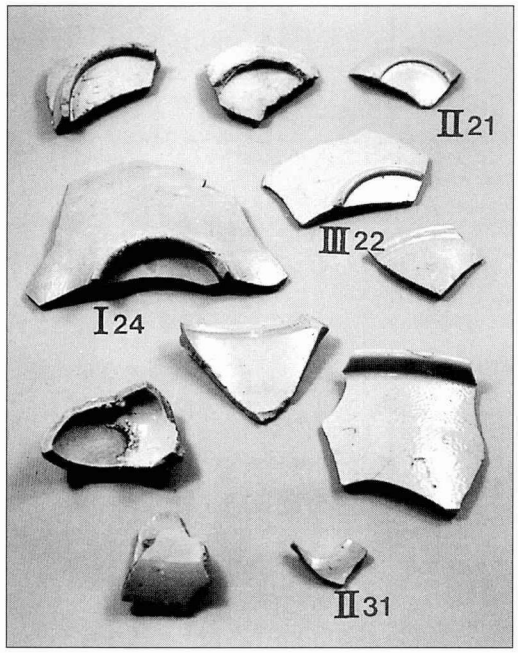


圖 9. <白磁片>, 朝鮮 1631～1636年경, 廣州郡 祥林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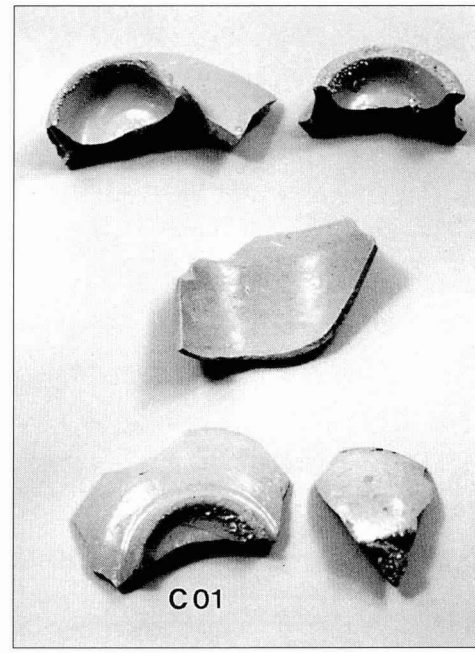


圖 10. <白磁片>, 朝鮮 1631～1636年경, 廣州郡 祥林里 5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1640년에서 1649년까지로 밝혀졌다(圖 11).[24] 이들 가마터의 편년과 출토백자의 출토상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17세기 전반 분원가마터의 편년과 백자 출토상황[25]

區分 / 窯址	陰刻銘	발견된 干支의 編年	種類	釉色	器 種	굽형식		굽받침법	
						匣燔	常燔	匣燔	常燔
炭筏里	左右 干支	丙午(1606),丁未(1607) □申(1608),己酉(1609) 庚戌(1610),辛亥(1611) 壬□(1612 ?)	白磁 青磁	밝은 회청 회백	발,접시 전접시 盒, 甁	내경하는역삼각형굽	오목굽	고운모래 굵은모래	모래비짐 태토비짐
鶴東里	左右 干支	癸丑(1613),□卯(1615) 丁巳(1617) 庚□(1620 ?)	白磁 青磁	밝은 회백	발 , 접 시 잔	내경하는역삼각형굽	오목굽	굵은모래	모래비짐 태토비짐
祥林里	左右 干支 數字	辛未(1631),癸酉(1633) 甲戌(1634),乙亥(1635) 丙□(1636)	白磁 青磁 鐵畵	밝은 청백	발,접시 전접시 壺, 誌石	낮은직립역삼각형굽	오목굽 역삼각형굽	고운모래	굵은모래 모래비짐
仙東里	左右 干支 數字	庚辰(1640),辛巳(1641) 壬午(1642),癸未(1643) 甲申(1644),乙酉(1645) 丙戌(1646),丁亥(1647) 戊子(1648),己丑(1649)	白磁 青磁 鐵畵 青畵	백색 유백 청백	대접,접시 전접시 잔, 壺 蓋盒 祭器	낮은직립역삼각형굽 넓은굽 안굽	역 삼 각 형굽 수직굽 오목굽	고운모래	굵은모래 모래비짐

위의 〈표 2〉를 보면, 17세기 1/4분기중에 운영된 탄벌리와 학동리가마터에서는 회백색 釉調의 백자들이 주로 발견되며 그릇에는 靑畵나 鐵畵文樣이 없다. 단면이 예리한 역삼각형을 이루는 굽의 바닥에 고운모래를 바르고 구운 양질백자와 거칠게 깎은 역삼각형굽 또는 오목굽의 조질백자가 공존하는데, 조질백자는 대부분 거친 모래와 잡토를 섞어 빚은 모래비짐을 몇개씩 받쳐 포개구웠다(圖 4의 B-01, 5의 B-02, 6의 B-03). 또한 조선전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태토비짐이 남아 있으며, 특히 탄벌리에서는 태토비짐의 接地面에 다시 모래를 묻힌

24) 鄭良謨, 위의 論文(1986), pp. 19~20 ; 한편 發掘調査된 2호요지에서도 동일한 年間의 간지가 출토되었다(註 5)와 같음).

25) 여기에서 분석한 도편자료는 現地에서 地表收集되어 國立中央博物館 陶片室에 所藏된 것으로 鄭良謨, 尹龍二, 金得豊 共著, 『韓國白磁陶窯止』(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에 소개되었으며 尹龍二, 앞의 論文(1981, 同著, 『韓國陶瓷史硏究』, 文藝出版社(1993), pp. 384~443.에 재수록)과 鄭良謨, 앞의 論文(1986), pp. 11~39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圖 11. <白磁陰刻干支銘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圖 12. <白磁鐵畫文片・青畫文片, 青磁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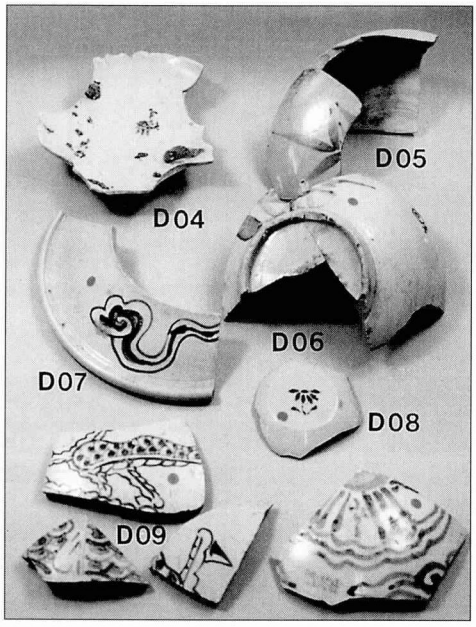


圖 13. <白磁鐵畫文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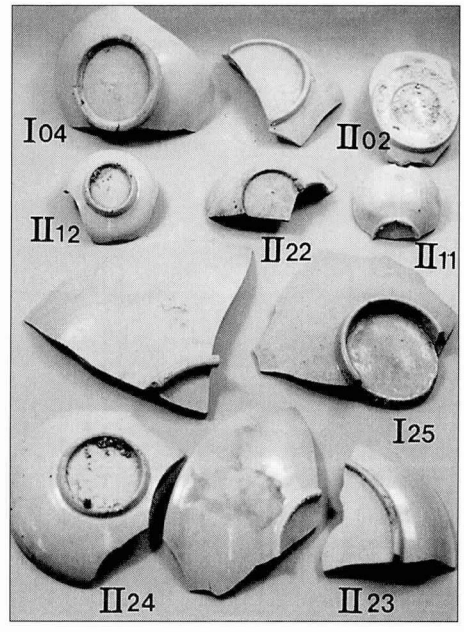


圖 14. <白磁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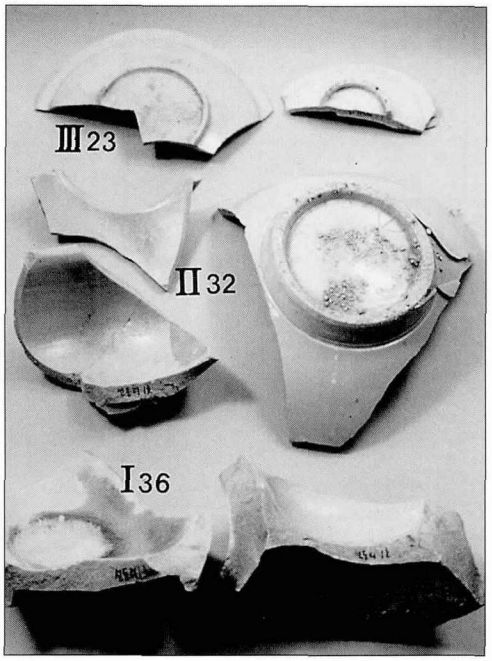


圖 15. <白磁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1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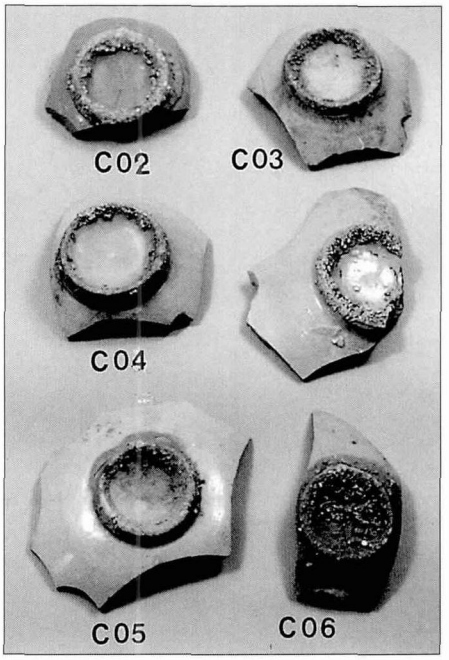


圖 17. <白磁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2・3號 가마터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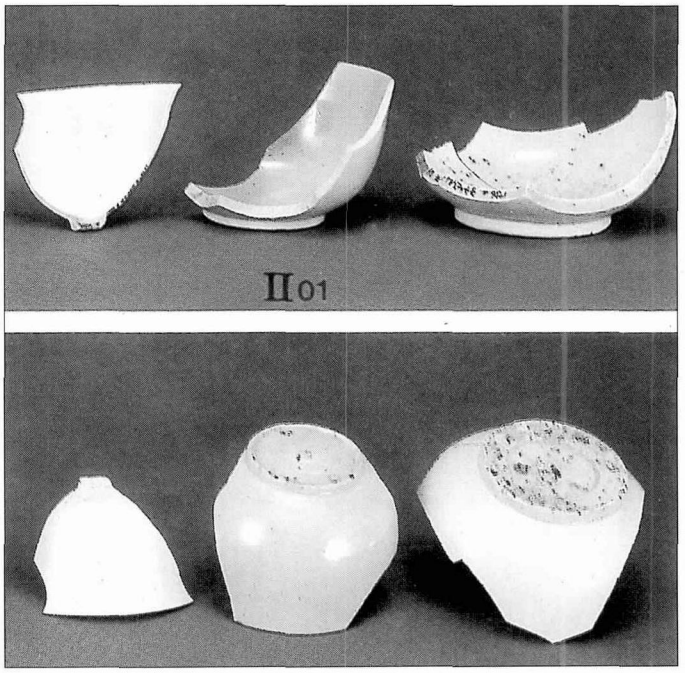


圖 16. <白磁鉢片>, 朝鮮 1640～1649年, 廣州郡 仙東里 2號 가마터 出土,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독특한 받침이 있는데(圖 4의 A-01, A-02), 이러한 받침법은 모래비짐과 함께 조선전기 태토비짐받침에서 선동리의 모래받침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추정된다.[26]

이후의 상림리와 선동리가마터에서는 약간 밝아진 青白釉調의 백자에 鐵畫나 青畫문양이 그려진 것이 출토되었는데(圖 12, 13), 이들은 포개굽지 않고 耐火匣鉢을 사용하여 정성껏 구웠다. 良質白磁의 경우는 낮고 예리한 역삼각형굽의 바닥에 고운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粗質의 경우는 오목굽 또는 거친 수직굽에 굵은 모래나 모래비짐을 받쳐 포개구웠는데, 탄벌리나 학동리에서 간혹 보이던 태토비짐받침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조질백자에서 모래를 받칠때 굽 주위에 내화토 흙물을 먼저 바르고 모래를 찍어묻힌 것이 있는데(圖 10의 C-01, 17의 C-02~C-06), 이것은 모래받침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백자의 器形變化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유물의 實測圖面을 器種別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3〉에서 〈표 5〉까지와 같다.[27]

<표 3> 17세기 전반 분원가마터 출토 백자발·종자의 변천

기종 / 가마터	발·종자	
炭筏里 (1608~1611)	Ⅰ형식(內底圓刻 있음) Ⅰ-01	Ⅰ형식(內底圓刻 있음)
鶴東里 (1613~1617)	Ⅰ-02	Ⅰ-11
祥林里 (1631~1636)	Ⅰ-03	Ⅰ-12 / Ⅱ형식(內底圓刻 없음) / Ⅱ형식(內底圓刻 없음)
仙東里 (1640~1649)	Ⅰ-04	Ⅱ-01 Ⅱ-02 / Ⅱ-11 / Ⅱ-12

26) 鄭良謨, (1986) 앞의 論文, p. 13.

27) 註 25)의 유물을 필자가 직접 실측·분류하여 작성하였음.

먼저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鉢과 鐘子는 內底圓刻의 有無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굽이 높고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좁은 원각이 있는 Ⅰ형식(Ⅰ-01~04, Ⅰ-11·12)과 굽이 낮고 내면에 원각이 없는 Ⅱ형식(Ⅱ-01·02, Ⅱ-11·12)이 그것이다.

17세기 전반의 모든 가마터에서 출토된 Ⅰ형식의 발은 앞의 〈표 1〉에서 본 것과 같은 조선전기의 발이 정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3과 圖 3, 5, 14의 Ⅰ-01~04). 주목되는 것은 Ⅱ형식의 발로서 앞 장에서 이미 선동리가마의 특징적인 기형으로 거론한 바 있다(표 3과 圖 14, 16의 Ⅱ-01·02). 이 그릇의 몸통은 굽에서부터 충분히 팽창되었다가 둥글게 꺾이면서 입술부분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 조선전기의 발과 형태가 다른데(圖 16의 Ⅱ-01), 釉胎의 품질이 우수하며 실측도 Ⅱ-02와 같이 굽이 바닥에 닫는 부분인 接地面의 폭이 약 1cm 가량으로 넓은 것도 있다(圖 14의 Ⅱ-02). 이러한 鉢은 선동리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선동리에서는 종자에도 모두 내저원각이 없고, 실측도 Ⅱ-11과 같이 입술이 곧게 뻗은 신형식이 발견되어 鉢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표 3과 圖 14의 Ⅱ-11·12).

접시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그릇 안바닥면에 원각이 있는 Ⅰ형식(Ⅰ-21~25)과 원각이 없는 Ⅱ형식(Ⅱ-21~24), 그리고 Ⅲ형식의 전접시(Ⅲ-21~23)로 구분된다.

<표 4> 17세기 전반 분원가마터 출토 백자접시의 변천

기종 / 가마터	접 시
炭筏里 (1608~1611)	Ⅰ형식(內底圓刻 있음) Ⅰ-21 / Ⅲ형식(전접시) Ⅲ-21
鶴東里 (1613~1617)	Ⅰ-22, Ⅰ-23 / Ⅱ형식(內底圓刻 없음)
祥林里 (1631~1636)	Ⅰ-24 / Ⅱ-21, Ⅱ-22 / Ⅲ-22
仙東里 (1640~1649)	Ⅰ-25 / Ⅱ-23, Ⅱ-24 / Ⅲ-23

입술이 펼쳐지고 내저원각이 있는 Ⅰ형식 접시는 朝鮮前期에 널리 제작되었으나 17세기 전반에는 〈표 4〉의 실측도와 같이 몸체의 곡선이 직선화되고 그릇 안바닥의 원각이 약간 좁아졌는데(圖 4, 5, 6, 9, 14의 Ⅰ-21~25), 앞서 본 仁興君 第一子의 "白磁楪匙形墓誌", 仁興君 第一女의 "白磁접시形胎誌"는 모두 이에 속한다(圖 1, 2).

내저원각이 없는 Ⅱ형식(Ⅱ-21~24) 가운데 입술이 옆으로 벌어진 실측도 Ⅱ-23의 접시는 안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굽은 낮지만 지름이 매우 넓다. 이와 유사한 접시는 樊川里를 비롯한 조선전기 가마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나 이보다 굽지름이 넓어 선동리 시기에 새로 등장하는 형식인 것 같다(표 4와 圖 14의 Ⅱ-21~Ⅱ-24).[28] 실측도 Ⅱ-24에서 보듯이 입술이 벌어지지 않고 곧거나 위로 굽은 접시 또한 선동리시기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생각된다(표 4와 圖 14의 Ⅱ-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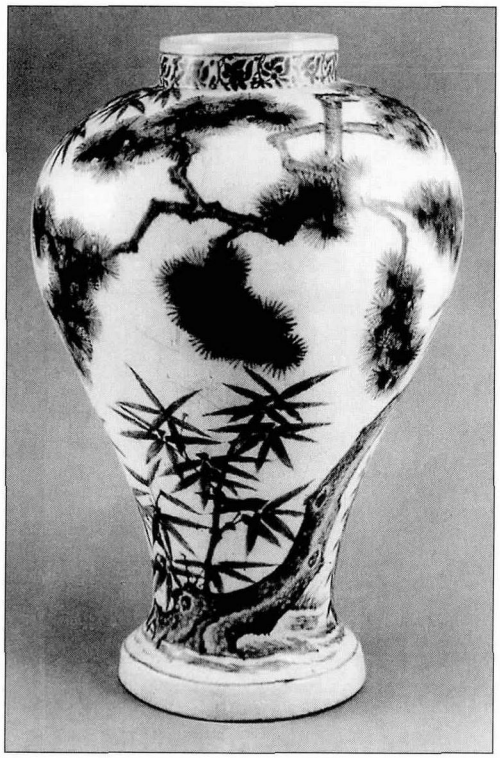


圖 18. <白磁靑畵弘治二年銘松竹文壺>, 朝鮮 1489年, 국보 176호, 높이 49.0cm 입지름 13.2cm, 굽지름 17.5cm, 東國大學校博物館.

전접시의 경우 炭筏里에서 출토된 전접시는 입지름이 22cm가량으로 크고 16세기의 전접시와 유사하게 안바닥이 평평하면서 높이가 낮으나 굽의 지름이 약간 좁아졌다(표 4와 圖 3의 Ⅲ-21).[29] 그런데 상림리와 선동리의 전접시는 안바닥이 우묵해지고 굽지름이 더욱 좁아져 상림리가마터 뚜렷한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표 4와 圖 9의 Ⅲ-22, 圖 15의 Ⅲ-23).

대접과 접시 이외에 뚜렷한 형태변화를 보여주는 器種인 항아리는 키가 큰 長身壺를 Ⅰ형식으로(Ⅰ-31~36), 몸체가 둥근 球形壺를 Ⅱ형식으로(Ⅱ-31·32)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5〉.

長身壺 가운데 일부는 몸통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졌다가 굽부분에서 다시 반전되어 굽이 투박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표 5와 圖 3, 8, 12의 Ⅰ-31~34). 이중에서 탄벌리에서 출토된 실측도 Ⅰ-31의 굽은 1489년의 연대가 알려진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靑畵白磁弘治二年

28)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3), pp. 73~76.

29) 朝鮮前期 分院의 전접시는 입지름이 20cm, 굽지름은 12~13cm가량이다(田勝昌, 「朝鮮前期의 白磁전접시 考察」, 『湖巖美術館 硏究論文集』 2호(1997), pp. 99~150).

銘松竹文壺"(圖 18)의 굽과 유사하여 조선전기의 형식이라고 보겠으나 상림리와 선동리 출토의 동일계통 항아리굽은 이보다 지름이 넓어지고 각을 이루던 바깥면이 둥글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圖 8의 Ⅰ-32, 圖 12의 Ⅰ-33). 또한 굽의 안쪽을 둥근 오목굽으로 깎아내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그밖에 구형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실측도 Ⅱ-32와 같이 구연부분을 깎아서 整形한 대형항아리가 나타나는 점으로 선동리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17세기 전반의 분원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의 형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炭筏里와 鶴東里가마에서 출토된 반상용기들은 대부분 朝鮮前期陶磁의 형식을 따르면서 키가 커지고 굴곡이 과장되는 등의 정형화 과정을 보였는데, 특히 전접시의 내면이 우묵해지고 항아리의 굽이 둔화되는 현상은 祥林里가마를 基點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그밖에 조질백자에서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굽는 방법과 鐵畵白磁의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 또한 상림리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림리가마의 운영기간인 1630년대에는 백자의 형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仙東里가마부터 내저원각이 없고 일부 굽이 낮으면서 몸통으로부터 입술이 곧게 올라오는 새로운 형식의 飯床用器들이 나타나면서 본격화된다고 하겠다.

<표 5> 17세기 전반 분원가마터 출토 백자항아리의 변천

기종 / 가마터	항아리	
炭筏里 (1608~1611)	Ⅰ-31	Ⅰ-35
鶴東里 (1613~1617)	Ⅰ형식(長身壺)	Ⅱ형식(球形壺)
祥林里 (1631~1636)	Ⅰ-32	Ⅱ-31
仙東里 (1640~1649)	Ⅰ-33, Ⅰ-34	Ⅰ-36, Ⅱ-32

Ⅳ. 白磁樣式 變化의 방향

1. 大量生産技術의 도입

1630년대 文獻과 遺物에서 함께 나타나는 분원백자의 변화는 곧 朝鮮前期白磁樣式의 쇠퇴와 새로운 양식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양식이 성립되는 원인과 그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17세기를 비롯한 이후 조선 백자양식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도자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굽받침법의 변화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양식변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본 상림리와 선동리가마의 租質白磁에서 사용된 모래받침법은 포개구운 그릇의 안바닥에 거친 모래자국이 남게되므로 태토비짐법에 비해 質的으로 향상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받침은 다소 백자의 품질이 低下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 목적은 다름아닌 生産量의 增大에 있었다고 본다.

모래받침법의 생산효율은 발굴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지방가마로 梨花女子大學校에서 발굴조사한 保寧 勒田里 백자가마에서는 모래를 받쳐 여러점을 포개구운 파편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圖 19), 조사결과 이 가마에서는 한번에 9점에서 11점의 그릇을 포개 구웠던 것으로 밝혀졌다.[30] 이밖에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구이한 가마로 大田 政生洞이나 昇州 後谷里, 安城 和谷里가마가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백자역시 늑전리와 유사한 수량을 포개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31]

圖 19. <白磁常燔片>, 朝鮮 18세기, 保寧市 勒田里 白磁가마터 出土,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30) 梨花女子陶藝硏究所, 韓國水資源公社, 앞의 책(1996), pp. 23~30.

31) 海剛陶磁美術館, 『대전 정생동 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1997); 충북대학교박물관, 앞의 책(199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後谷里 白磁 陶窯址」, 全南大學校博物館, 全羅南道, 『住岩댐 水沒地

그러나 조선전기에 성행한 태토비짐받침으로는 그릇의 중심을 잡기 어려우므로 이처럼 많이 포갤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15세기의 가마로 海剛陶磁美術館에서 발굴조사한 廣州 牛山里 17號의 경우는 평균 4에서 5점의 그릇을 포개구운 사실이 확인 된 바 있다.[32] 두 유적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모래받침법은 태토비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한번에 2배 가량 많은 그릇을 포개어 쌓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전반에 보이는 굽받침법의 변화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된 것이 분명하며 이점은 당시 分院이 생산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사실과도 부합되는 기술적인 극복방안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위와같은 굽받침법의 변화가 분원의 조질백자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분원의 조질백자에서 보이는 형식이나 생산기술이 동시대 지방백자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질백자를 대량생산하는 방법은 이미 16세기의 지방가마에서 多角的으로 시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33]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17세기까지의 지방가마와 출토유물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며 간략하게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6〉이다.

뒤쪽의 〈표 6〉에서와 같이 15~16세기에 운영된 대부분의 지방백자가마에서는 분원가마와 유사하게 胎土나 耐火土, 모래등을 빚어 그 비짐으로 굽을 받쳤다. 그런데 1997년 海剛陶磁美術館에서 발굴조사하여 16세기 후반의 가마로 추정된 大田의 政生洞가마의 백자는 분원보다 先行하여 모래받침법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굽의 내면을 오목하게 깎고 굽부분 전체에 유약을 시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생동 백자가마에서는 가마의 운영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粉青沙器鐵畫文破片"이 한 점 발견되었는데(圖 20), 분청사기는 인근의 公州 鶴峰里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34] 또한 大田 梧井洞에서 발굴조사된 조선전기 주거지와 건물지에서도 정생동 계통의 모래받침 백자와 학봉리 계통의 철화분청사기가 동반출토된 바 있어 두 계통이 거의 동시기에 동일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5] 학봉리의 철화분청사기는 이곳 출토의 편년자료인 "鐵畫成化二十三年(1487)銘墓誌片"나 "鐵畫弘治三年(1490)銘墓誌片", "鐵畫嘉靖十五年(1536)銘墓誌片"등의 제작년대로 보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유행하였다고 본다.[36] 따라서

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Ⅴ)』(1988), pp. 161~234;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8).

32)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1999), p. 64.

33) 片山まび, 「一六世紀の朝鮮陶磁と草創期の唐津燒との比較研究 一［近世的な窯業］の萌芽を視座として-」, 『朝鮮學報』 第167輯(1998), pp. 23~67.

34)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1997)과 李鍾玟, 「大田地方의 陶磁文化」, 『大田地方의 發掘遺蹟』(大田光域市鄕土史料館, 1997), pp. 141~156.

35) 韓南大學校博物館, 「大田梧井洞遺蹟」(1998), pp. 56~107. 6, 7, 9,호 주거지와 1, 2,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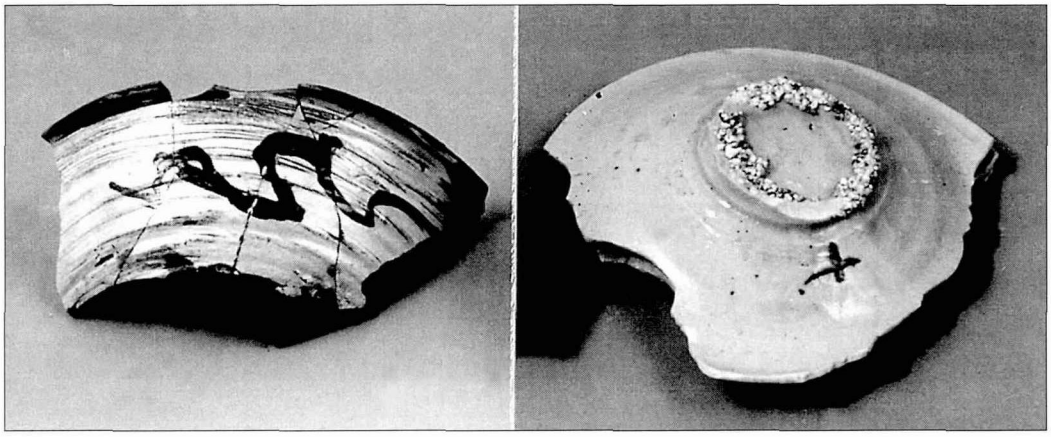


圖 20. <粉靑沙器鐵畫文片과 白磁片>, 朝鮮 16세기 후반, 大田市 政生洞 白磁가마터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정생동 백자가마는 학봉리 분청사기가마의 뒤를 이어 주로 公州, 大田地域의 需要를 충당한 지방가마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욱이 모래받침법은 학봉리 분청사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정생동 백자가 학봉리 분청사기의 뒤를 잇고 있음이 분명하다.[37]

결국 모래받침법은 15~16세기에 걸쳐 학봉리 분청사기와 정생동 백자에서 꾸준히 사용됨으로써 忠南地方 陶磁技術의 특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38] 그렇다면 분원의 경우 17세기 상림리가마에서부터 등장하는 모래받침은 조질백자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방, 특히 대전과 공주일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같은 점은 당시 분원에 出役하던 地方沙器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될 수 있다.[39]

도자기의 생산효율은 굽받침법 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를 비롯하여 原料의 선택, 成形 및 施釉 등의 제작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분원에서는 모래받침법 이외의 다른 기술적 요소들도 지방으로부터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그 예로 仙東里가마에서 보이는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圖 21). 17세기의 분원가마로 유일하게 발굴조사된 仙東里 3號가마는 가마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전체 규모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개의 소성실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은 소성실 전체가 길게 1개의 방으로

36) 朝鮮總督府,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1927)의 pp. 24~28 및 圖版 44, 45, 47; 姜敬淑, 『粉靑沙器硏究』(一志社, 1986), pp. 182~187.

37) 姜敬淑, 앞의 책(1986), p. 366~377. 粉靑沙器에서 모래받침의 등장은 15세기 후반부터이다.

38) 片山まび, 앞의 論文(1998), pp. 44~50.

39) 姜萬吉, 「朝鮮後期, 分院의 運營實態」, 『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한길사, 1984), pp. 79~129. 分院沙器匠과 地方沙器匠이 구분되고 각각 고정되는 것은 대체로 17세기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地方의 沙器匠들이 교대로 소집되어 分院公役에 종사하였다.

<표 6> 발굴조사된 15~17세기 지방의 백자가마와 출토유물의 특징[40]

특징 / 가마터	편년	백자						가마			
		기형			문양	제작기법					
		구연	내저 원각	굽		받침	굽 시유	측문 수	바닥	길이 (m)	내벽폭 (m)
광주 충효동	15C후	외반	있음	수직굽 죽절굽	음각	태토비짐 모래비짐	없음	6	평평한 경사	20.6	1.3
보령 용수리	15C후	외반	있음	죽절굽	철화	내화토비짐	없음	7~8	평평한 경사	34.8	1.4~1.7
칠곡 다부동	16C	외반	있음	죽절굽	없음	내화토섞인 모래비짐	없음	6	계단식 경사	19.0	1.3
군포 산본동	16C전	외반	있음	죽절굽	청화,철화 음각	태토비짐	없음	3	계단식 경사	현존 20.4	1.4~1.9
산청 방목리	16C전	외반	있음	죽절굽	철화묘지 (청화?)	내화토섞인 모래비짐	있음	4~5	평평한 경사	17.5	1.4
안동 신양리	16C중	외반	있음	죽절굽	없음	내화토섞인 모래비짐	없음	5	굴곡있는 경사	13.8	1.4
대전 정생동	16C후	외반	있음	죽절굽 오목굽	철화	굵은모래	있음	4	계단식 경사	26.0	1.4
장성 대도리	17C전	외반	있음	죽절굽 오목굽	없음	태토비짐	있음	4	굴곡있는 경사	23.5	2.8
충주 미륵리	17C후	외반 직립	있음 없음	오목굽	철화	굵은모래	있음	6	계단식 경사	약 18.0	~4.0
승주 후곡리	17C후	외반 직립	있음 없음	오목굽	철화	태토비짐 모래비짐	있음	3	계단식 경사	10.0	2.1~2.5
곡성 송강리	17C말 18C초	외반 직립	있음 없음	오목굽	철화	태토비짐 모래비짐	있음	4	계단식 경사	11.2	1.6~2.2
안성 화곡리	17C말 18C초	직립	없음	오목굽	철화	굵은모래	있음	3	계단식 경사	12.0	2.0~2.5

40) 다음의 발굴조사보고서들을 기초로 작성함.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海剛陶磁美術館, 「龍水里 3號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韓國水資源公社·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6); 慶北大學校 博物館, 「漆谷 多富洞 磁器 窯址」, 慶北大學校博物館·大邱敎育大學博物館·昌原大學校博物館,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大邱~軍威間)』(1991), pp. 9~66, 153~184. 湖巖美術館, 「陶窯址遺蹟」, 明知大學校博物館·湖巖美術館·京畿道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1990), pp. 209~327; 慶南·釜山遺蹟保存協議會, 『산청 방목리 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1996); 慶南大學校博物館, 「安東新陽里 朝鮮白磁窯址」, 慶北大學校博物館·大邱敎育大學博物館·昌原大學校博物館,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軍威~安東間)』(1992), pp. 10~94;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1997); 목포대학교박물관·장성군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1995); 충북대학교박물관, 앞의 책(199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88), pp. 161~234. 國立光州博物館, 「谷城 松江里 白磁窯址」, 『湖南高速道路 擴張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I』(1997), pp. 313~412;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8).

圖 21. <仙東里 3號 가마 全景>, 朝鮮 1640~1649年,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發掘調査.

圖 22. <樊川里 5號 가마 全景>, 朝鮮 1554年 전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發掘調査.

구성된 16세기 중반의 樊川里 5號가마와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圖 22). 그런데 각 방이 층을 이루며 분리되어 있는 선동리가마는 번천리가마보다 불조절이 쉽고 열이 고르게 분산되는 장점이 있어 가마의 효율, 즉 생산성이 우수한 가마라고 하겠다.[41]

선동리에서와 같은 구조의 가마가 언제부터 어떻게 분원에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앞의 〈표 6〉에서와 같이 그간 발굴조사된 가마들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漆谷 多富洞이나 軍浦 山本洞, 大田 政生洞과 같은 16세기 가마에서 이미 가마의 소성실 바닥이 계단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현재로서 이러한 가마가 선동리가마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이들 지방가마에서 보이는 가마바닥의 형태는 적어도 16세기 중반 번천리가마에서 보이는 평평한 경사의 바닥과는 構造的으로 다르며 오히려 선동리의 가마바닥과 보다 유사하다고 하겠다. 가마築造樣式의 전파관계는 앞으로 많은 발굴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서는 선동리에서 보이는 가마구조와 유사한 축조양식이 분원보다는 지방가마에서 先行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41) 方炳善, 「朝鮮 後期 白磁의 製作技術 硏究」, 『美術史學硏究』 214(1997), pp. 67~104.

2. 獨自的 形式의 모색

분원의 조질백자에서 보이는 제작기법은 大量生産을 목적으로 地方가마로부터 도입한 것임을 앞에서 밝혀보았다. 조질백자에서 제작기법의 변화는 굽의 형태와 같은 기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분원에서 器形과 文樣의 형식변화는 주로 양질백자에서 발견되므로 기법과는 다른 형식의 생성경로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형은 상림리와 선동리에서 두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한가지는 기존형식의 定形化이며 또 한가지는 新形式의 등장이었다. 前者의 경우는 飯床用器, 특히 鉢과 鍾子에서 몸통이 높아지면서 배가 불러 곡선이 과장되고 내저원각이 작아지는 점 등이며, 상림리에서부터 전접시가 우묵해지고 항아리굽의 안팎이 곡면화되는 경향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초반의 탄벌리와 학동리에서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표 3, 4, 5 참고). 여기에서 몸체의 곡선이 과장되어 鉢의 형태가 마치 항아리처럼 변화되는 것은 中國의 景德鎭白磁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明代樣式에서 淸代養式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다.[42]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경향의 유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형의 양식적인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선동리에서 보이는 새로운 형식의 등장이다. 이 신형식은 鉢, 鍾子, 楪匙 모두 공통적으로 내저원각이 없으며 굽이 낮고 입술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선동리의 鉢(표 3과 圖 16의 II-02)과 鍾子(표 3과 圖 14의 II-11), 楪匙(표 4와 圖 14의 II-24)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경 廣州의 分院里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海剛陶磁美術館 所藏의 "白磁靑畵壽銘有蓋鉢"과 유사하다(圖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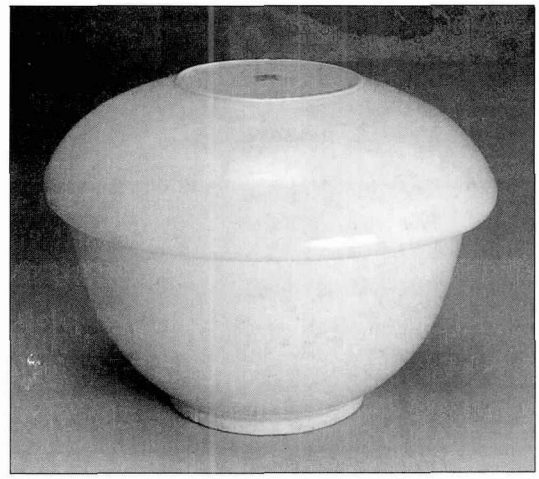


圖 23. <白磁靑畵壽銘有蓋鉢>, 朝鮮 19世紀, 높이 13.0cm, 海剛陶磁美術館

따라서 선동리에서 나타나는 신형식의 특징은 이후 조선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海剛陶磁美術館의 조선후기 발을 보면 뚜껑이 덮혀 있어 선동리 출토의 발과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42) 耿寶昌, 『明淸瓷器鑒定』(北京: 紫禁城出版社, 1993), pp. 157~228; 마가렛 메들리 著, 『中國陶磁史』, 金英媛 譯(悅話堂, 1986), pp. 265~268. 17세기 중반에 성행하는 과도기적(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Ming and Ch'ing)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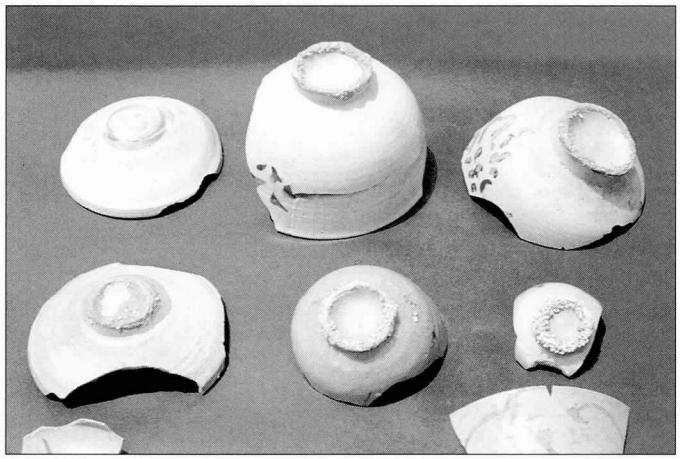


圖 24. <白磁鐵畵文片>, 朝鮮 17세기 후반, 안성군 화곡리 白磁가마터 出土,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이 뚜껑의 상부에는 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일종의 突帶가 있어 선동리 출토의 신형식 접시의 굽(표 4와 圖 14의 II-24)과 매우 유사하다. 즉 조선후기 有蓋鉢의 뚜껑은 선동리 출토품과 같은 접시가 변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선동리 출토의 신형식 접시는 함께 등장하는 신형식 발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이며 이러한 용법이 조선후기 뚜껑있는 발의 형식에까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선동리의 발굴조사에서는 실제로 접시를 뚜껑처럼 뒤집어서 구운 경우가 발견되어서 이러한 假定을 뒷받침하여 준다.[43] 또한 17세기 후반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民需用 지방가마로서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에서 발굴 조사한 안성 화곡리 백자가마터에서는 선동리 이후 널리 제작된 원각이 있고 입술이 직립한 발과 접시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圖 24).[44] 이중에서 접시는 발 위에 덮기 편리하도록 구연부분의 안쪽에 분명한 꺾임을 주고 있어 뚜껑의 용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본 조선후기의 有蓋鉢에서와 같이 백자발에 뚜껑이 갖추어지는 시점은 늦어도 17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선동리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식의 발과 접시는 이러한 유개발의 선구적인 형태로 추정된다.

굽이 있는 접시형의 뚜껑은 高麗나 朝鮮時代의 金屬器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금속기는 거의 없으나 朝鮮末期의 것으로 전해지는 예로서 光州民俗博物館 所藏의 "鍮器보시기"를 보면 앞서 본 海剛陶磁美術館의 조선후기 대접은 물론 선동리의 발이나 접시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圖 25).

많은 도자기가 이보다 고급용기인 금속기를 모방해서 제작되었던 사실에 반하여 오히려 금속기가 도자기를 모방한 예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光州民俗博物館의 鍮器보시기, 특히 돌대가 달린 뚜껑은 백자의 형식을 본딴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鍮器와 유사하게 굽이 낮고 구연이 직립한 선동리의 신형식 발이나 역시 낮고 예리한 굽을 가진 신형식 접시는

43)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앞의 책(1986), p. 176.

44)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앞의 책(1998).

뚜껑이 있는 金屬容器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점은 조선 전기의 경우에도 전접시와 같이 金屬器皿을 모방한 그릇에는 금속기에서 볼 수 있는 낮고 예리한 굽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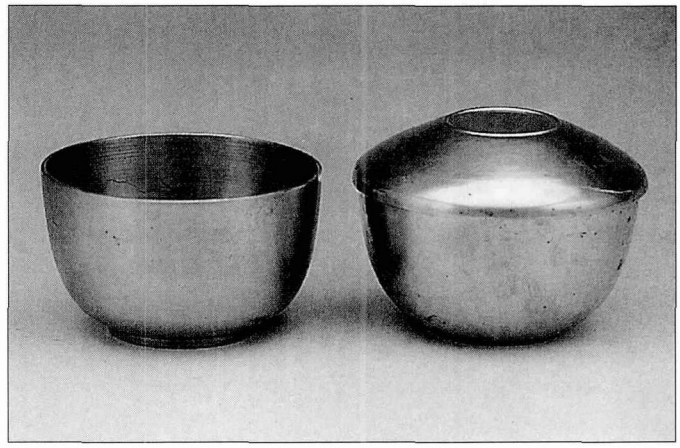


圖 25. <鍮器보시기>, 朝鮮 19세기, 높이 6.7cm 입지름 9.2cm, 光州民俗博物館.

선동리에서 나타나는 신형식 반상용기의 祖形이 금속기에 있다는 추측은 17세기 전반에 金屬이 부족했던 사실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란직후에는 금속기명이 부족하여 이것을 磁器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宣祖實錄』 28年(1595)條의 내용에는 '… 수라상에 銀그릇을 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니 마땅히 沙器그릇으로 대용해야 합니다.'라는 상소가 있었다.[46] 그밖에도 宣祖 34年(1601)에는 '…魂殿의 祭享에 쓰일 器物중 부득이 鍮器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沙器를 구워 쓰는 것이 마땅하다.'[47]라고 한 사실이나, 같은 해의 기록에서 '廟祠와 各陵의 각종 제기제작에 소요되는 鑄鐵 등의 물자를 마련할 수 없어 爵, 簠, 簋, 龍勺 등 四物만 마련한다면 철로 주조하고 나머지는 사기로 구워서 쓰는것이 합당합니다.'[48]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 銀器, 鍮器나 鐵器등을 磁器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金屬材料의 부족은 17세기 전반동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49] 이와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선동리부터 발견되는 신형식의 반상용기들은 금속기를 모델로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45) 田承昌, 앞의 論文(1997), pp. 108~116.

46) 『宣祖實錄』 28年 6月 10日辛亥條. "…柳永詢曰,近間祭享節次,臣聞之于差祭之官,則宗廟行祭時,以常沙器常鐘子,代爵用之非徒大小不均,破未安,頃見禮曹公事,有令司饔院燔造器皿之事,至於推考官如比器皿,亦可燔造也,…今當殘破之餘,百物蕩盡,邊豆器皿,亦不能備,則銀器之用於御供者,固爲不可,當以沙器代之…"

47) 『宣祖實錄』 34年 2月 2日辛未條. "…然祭享器皿,不可不漸次改備,依魂殿祭用器皿例,不得已以鍮器爲之者外,其餘,則姑以沙器燔造用之似當…"

48) 『宣祖實錄』 34年 4月 17日甲申條. "祭器都監啓曰,廟社各陵,各樣祭器儀物造成事, 啓下,故所入鑄鐵等物,大數萬斤,可以成形而當比物力枯渴之時,辦出無路,依魂殿祭器例,爵簠簋龍勺等,四物磨鍊,則該用鑄鐵,當至三千餘斤,而亦難卒備,爵及龍勺,僞先造成,簠簋,隨鑄鐵所得多幕,漸次改備,其餘則姑以沙器燔造,爲當"

49) 『承政院日記』 仁祖 3年 4月 9日條, 『仁祖實錄』 6年 12月 4日條, 11年 6月 16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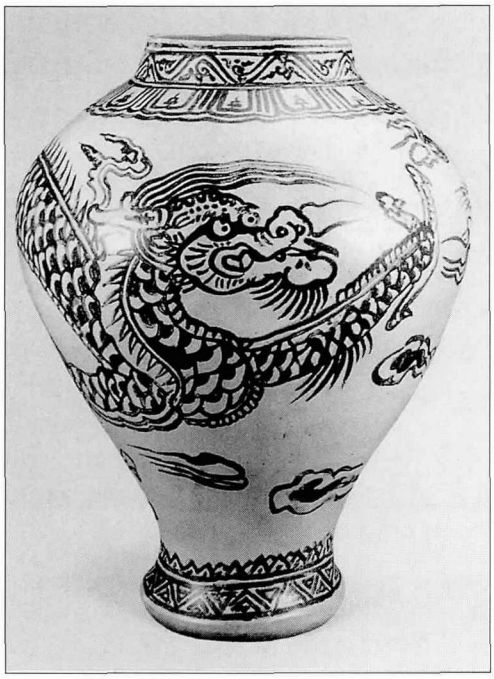


圖 26. <白磁鐵畵雲龍文壺>, 朝鮮 17세기 전반, 寶物 645號, 높이 45.8cm,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文樣에 있어서는 상림리와 선동리에서 다량의 鐵畵白磁가 발견되어 17세기에 靑畵白磁를 대신하여 분원에서 철화백자를 제작한 시점을 1630년대로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 분원에서 官用의 철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게 된 원인은 仁祖 12年(1634)의 『承政院日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사에는 '天使宴享에 소용되는 畵龍樽은 예전에 假畵로 사용하였는데 그림이 벗겨지는 폐단이 많아 역관을 통해 〔靑畵〕를 무역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 부득이 石間朱 〔鐵畵〕로 龍樽을 번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번에도 이 樽을 사용하고자 한다.[50]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1634년에 비로소 靑畵白磁나 假畵를 대신하여 철화백자를 宮中宴會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위의 記事가 기록된 仁祖 12年(1634)은 상림리가마의 운영기간에 해당되며 실제로 상림리가마터에서 발견된 鐵畵片가운데에는 龍文壺의 부분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圖 8의 I-32, D-03). 그리고 仁祖 12年 실록의 내용이나 상림리가마터 출토편과 부합하는 철화백자로는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의 "白磁鐵畵雲龍文壺"를 꼽을 수 있다(圖 26). 이 항아리에 표현된 구름문양은 상림리 출토의 철화편과 표현수법이 일치하고 있으며(圖 8의 D-03), 이후의 선동리 출토 철화편에서도 동일한 계통의 문양이 계속되고 있다(圖 13의 D-07·09). 또한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龍文壺에서와 같이 둥글게 밖으로 벌어진 굽은 조선전기양식의 변형으로서 상림리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앞 장에서 고찰한 바 있다(표 5와 圖 8의 I-32, 12의 I-33). 따라서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의 龍文壺는 1630년대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鐵畵龍文壺의 하나라고 판단되며 왕실에서도 국산안료를 自給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분원에서 철화백자의 제작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50) 『承政院日記』 仁祖 12年 5月 18日癸卯條. "司饔院,以提調意啓曰,天使宴享時所用畵龍樽,前日則假畵龍樽用之,其負於往來之際,多有脫畵之弊,故自本院備價,付與赴京譯官,使之貿來,非一非再,而譯官等稱□,不爲無來,以此不得已,以石間朱起畵,燔造龍樽,唐差接見時,皆以此用之,今此詔使接待時,亦以此樽用之之意啓,傳曰,知道."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鐵畵龍文壺의 문양을 조선전기의 湖巖美術館 所藏의 "白磁靑畵雲龍文甁"(圖 27)이나 우산리 9호가마의 발굴에서 출토된 "白磁靑畵雲龍文壺片"(圖 28)과 비교하면 목을 S자형으로 구부리고 머리를 앞으로 날리면서 구름사이를 비상하고 있는 도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세기 후반의 靑畵龍文壺로 추정되는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所藏의 "白磁靑畵雲龍文壺"(圖 29)와 비교하여 보면 보조문양의 배치와 용의 구도가 유사하지만 부정형으로 흐트러진 구름과 어깨부분의 간략화된 연판문, 굽부분에서 이중연판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거치문은 동일양식이 정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51] 즉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鐵畵龍文壺의 문양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靑畵龍文壺의 圖像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施文材料를 달리하면서 표현이 보다 간략하고 자유로롭게 바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철화용문에서 예를 들어 본 이와같은 문양의변화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 "白磁鐵畵梅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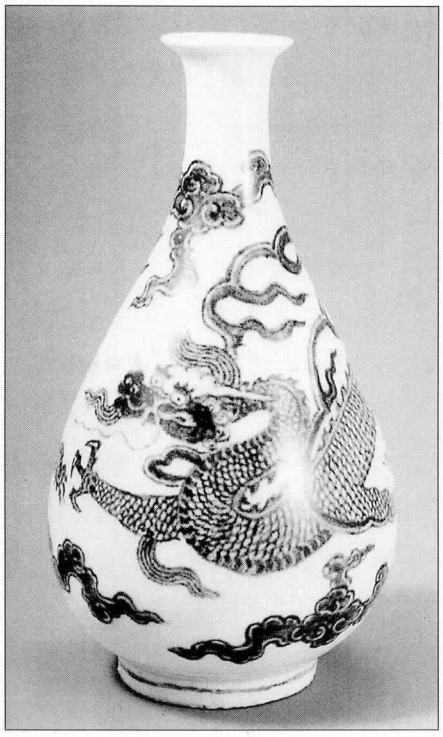


圖 27. <白磁靑畵雲龍文甁>, 朝鮮 15세기 후반, 寶物 786號, 높이 25.0cm 입지름 5.3cm, 굽지름 7.7cm, 湖巖美術館.

圖 28. <白磁靑畵雲龍文壺片>, 朝鮮 15~16세기, 廣州 牛山里 9號 가마터 出土,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51) 張起熏,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제 12호(1998), pp. 85~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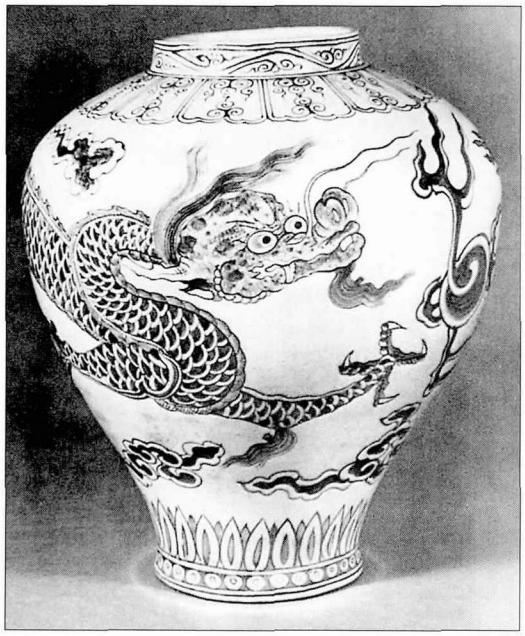


圖 29. <白磁靑畵雲龍文壺>, 朝鮮 16세기 후반,
높이 34.5cm, 日本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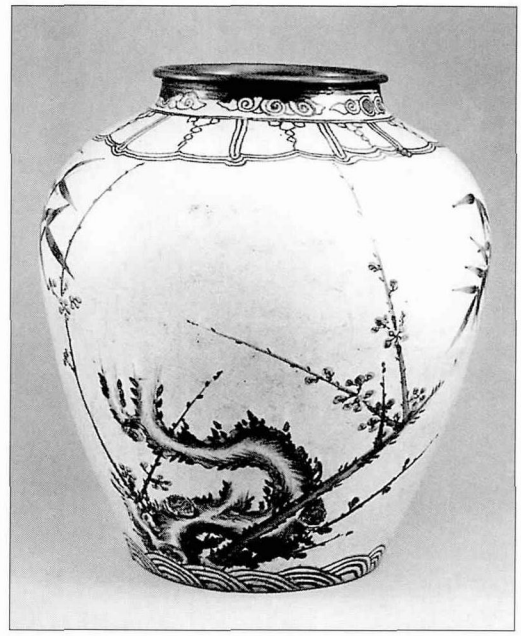


圖 30. <白磁鐵畵梅竹文壺>, 朝鮮 17세기 전반,
높이 41.3cm, 國立中央博物館.

文壺"와 같은 식물문양에서도 볼 수 있는데(圖 30), 이 항아리의 문양은 선동리에서 출토된 鐵畵梅花文片이나 鐵畵竹文片과 표현수법이 유사하여 17세기 전반의 作品으로 추정된다(圖 12의 I-34, 13의 D-05·06). 문양의 소재와 구도가 이들과 동일한 조선전기의 청화백자로는 湖巖美術館 所藏의 "白磁靑畵梅竹文壺"가 있어서 서로 비교된다(圖 31). 湖巖美術館의 梅竹文壺는 두가지 색조의 청화를 사용하여 국화와 변형현판문의 보조문양을 정교하게 시문하고 몸통부분에 梅竹文을 鉤勒典彩法으로 그려넣었다. 그러나 國立中央博物館의 鐵畵梅竹文壺는 어깨와 굽주위의 보조문양을 단순한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주문양 역시 沒骨法을 이용하여 단번에 그려낸 것이 서로 다르다. 17세기 전반의 철화백자에서 보이는 문양의 간략화나 자유로운 표현성향은 선동리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所藏의 "白磁鐵畵竹文扁甁"에서 보다 자유롭게 구사된 대나무문양을 볼 수 있다(圖 32).

앞에서 살펴본 상림리와 선동리시기 철화백자에서는 새로운 도상의 전래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재료의 변화와 이에 따른 表現樣式의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器形에서 보이는 조선전기양식의 정형화과정이나 金屬器를 모델로 한 조형의 모색과 함께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獨自的으로 구현된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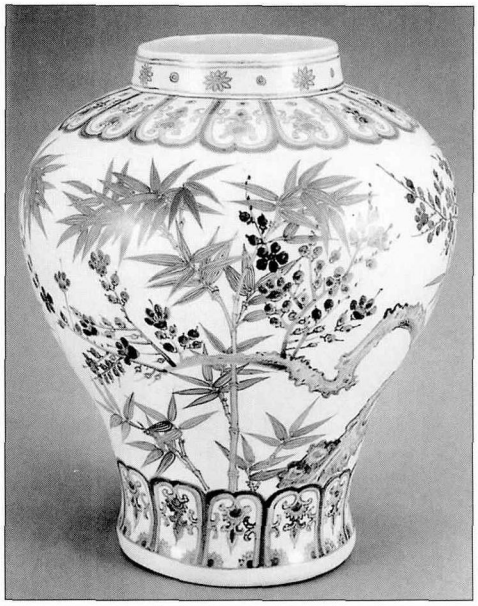


圖 31. <白磁靑畵梅竹文壺>, 朝鮮 15세기 후반, 높이 39.9cm, 입지름 15.6cm, 굽지름 18.2cm, 湖巖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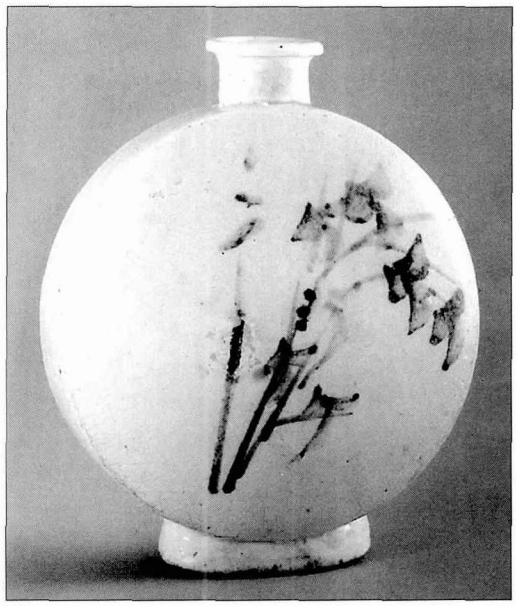


圖 32. <白磁鐵畵竹文偏甁>, 朝鮮 17세기 후반, 높이 19.5cm, 폭 17.5cm, 日本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고찰해 본 결과 17세기 전반의 分院白磁에서 보이는 樣式의 變化는 壬辰倭亂이후 침체된 도자산업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大量生産의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여 개선과 재정립을 시도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京畿道 廣州의 仙東里가마(운영기간 1640~1649)의 발굴조사에서 드러난던 백자의 형식적 특징, 즉 항아리나 대접의 몸통굴곡과 量感이 과장되는 현상이나 굽이 낮고 내저원각이 없으면서 입술이 곧게 뻗은 대접과 접시의 출현, 그리고 鐵畵顔料를 고급백자의 施文材料로 사용한 사실은 17세기 전반에 분원에서 이루어진 양식변화의 결과로서 17세기 양식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변화의 과정은 선동리보다 앞서서 분원이 운영된 祥林里가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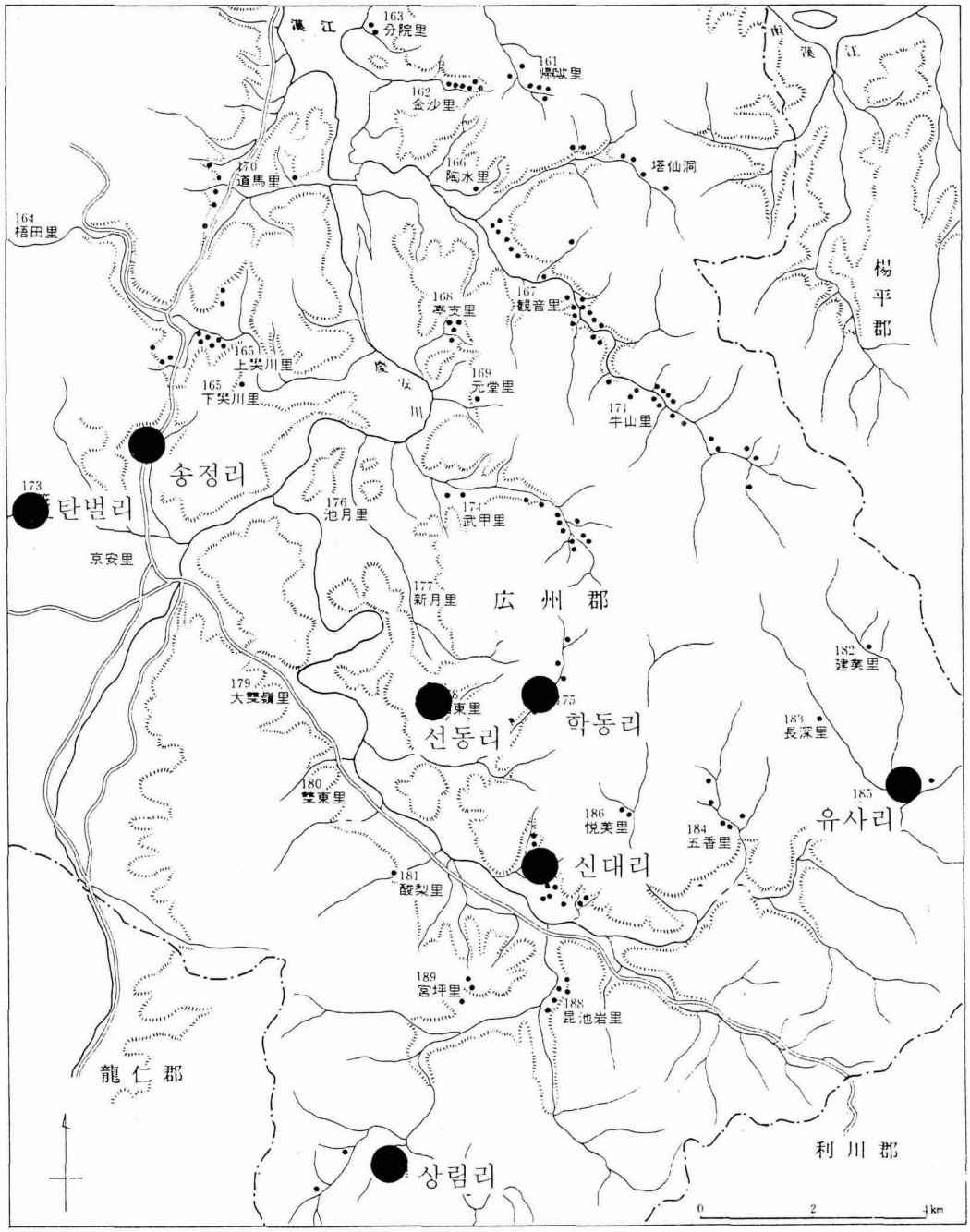
상림리가마는 1631년부터 1636년을 포함한 전후시기에 요업활동을 하였으며 이 시기는 仁祖年間에 분원의 경영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이루어진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 기록을 통해 분원에서 官用 鐵畵龍文壺를 처음 제작한 시점으로 밝혀진

1634년 또한 상림리가마의 운영기간이었다. 따라서 1630년대는 새로운 양식이 성립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는 倭亂에 이은 仁祖反正(1623)과 두차례의 胡亂(1627, 1637~1638)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자주성이 강조되고 민족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 새로운 성격의 도자양식이 성립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갖추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시기 상림리와 선동리가마에서 출토된 백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기형과 문양, 燔法을 보이고 있는데, 기형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태가 과장·왜곡되는 정형화의 경향과 더불어 금속기를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접과 접시가 발견된다. 선동리에서 대량으로 확인된 이 器形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 결국 새로운 造形의 근원이 中國이나 외부의 영향이 아닌 조선 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형뿐만 아니라 문양에 있어서 主顔料로 사용하기 시작한 鐵畵 역시 조선전기에 분청사기나 백자의 施文材料로 地方의 民需用가마에서 많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비록 고급의 재료는 아닐지라도 분원백자에 도입하여 자유롭고 활달한 표현을 이루어낸 17세기 철화백자는 國産顔料의 특성을 잘 살려낸 조선의 獨自性이 담긴 것이라고 하겠다.

선동리가마의 발굴에서 드러난 계단식가마의 運用이나 상림리에서부터 발견되는 모래받침법을 통해서는 大量生産을 목표로 한 産業化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질백자에 모래를 받쳐 포개굽는 방법은 公州 鶴峰里 粉青沙器가마나 大田 政生洞 白磁가마와 같은 16세기 충남지방의 가마에서 사용되던 방법을 분원이 受容한 예로 추정되고 있다.

대개 1630년대부터 분원가마에서 확인되는 백자양식의 변화는 조선 독자의 백자제작을 시도하는 主體性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大量生産의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技術的·形式的인 바탕이 이미 조선 전기부터 내부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점도 함께 고찰할 수 있다.



<地圖> 干支銘에 의해 年代가 알려진 17세기 白磁가마터 分布

[ABSTRACT]

The Change of Style in Porcelain from Punwŏ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Chang, Ki-hoon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style in porcelain and the external factors for the chang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in Chosŏn dynasty. During this period, the official kilns moved approximately four times within the Kwangju (廣州) area in Kyŏnggi Province, from T'anbŏl-ri (炭筏里, 1606-11) to Hakdong-ri (鶴東里, 1613-17), Sanglim-ri (祥林里, 1631-36), and finally to Sŏndong-ri(仙東里, 1640-49).

In analyzing broken sherds of porcelain collected at these kiln sites, we find distinct features and the evolution of styles. The main features are summarized as the appearance of the white porcelain inscribed with cyclical year and those painted with iron-black pigment and the gradual replacement of clay ball by sand for the base support of porcelain.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in types an shapes: bowls and dishes with the round intaglio design on the inside bottom disappeared, and outward-bent rim alternated with upright rim.

The porcelain of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shows two styles. One is the early Chosŏn-dynasty style influenced by the Ming China wares, and another is a new style that appeared around 1630 while the Sanglim-ri kiln was active. This new style emerged as indigenous development in the craft of Chosŏn dynasty adopting the form of high-quality brass-wares and the technique of mass-producing provincial kilns. With the emerging of a new style during the 17th century, we can characterize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as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ŏn porcelain style. With this conclusion, we can suppose that this change was not related to the Hideyoshi Invasion (1592-98), but reflects the process of improvement and reorganization.